

건강 칼럼

식중독 예방으로 건강한 삶을

호 사이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꽃구경과 나들이가 많아지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다.

이런 시기에는 밖에서 음식을 취사해 먹거나 간단한 김밥이나 미리 조리한 음식을 집에서 준비해 두었다가 가지고 나들이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나들이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해 음식을 잘 못 섭취하거나 조리과 과정에서 이상이 생겨있는 그 음식을 섭취한 후, 심한 배탈이나 설사, 구토와 두통 등의 증상으로 모처럼의 나들이를 망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기도 하고, 잘 알지 못한 야생 나물을 낚것으로 잘못 먹고 난 뒤, 심한 배앓이나 설사, 구토 등으로 고생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생명이 위태롭기까지 한 경우가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가 접하기도 하는 시기가 이쯤이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중독을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성형 질환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법에서 식품이란 모든 음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식품 관련한 "위해"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식품관련 사고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식중독으로 보는 것이 바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식중독은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 속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일련의 삶 속에 항상 같이하는 위생요소라고 보면 이해가 보다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 올바르게 손을 잘 씻는 등 개인위생을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다.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는 것은 물론, 음식조리와 배식 과정에서도 음식물을 다루는 사람은 각별한 위

생관념을 가지고 취급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또 음식물 취급자가 설사나 장염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배앓이 등 증상이 있으면 절대 조리에 참여하거나 배식 등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조리시설이나 기구 등은 잘 세척하거나 소독해서 사용하고 조리실 바닥에 균열이나 파손 등이 있으면 오물이 끼지 않도록 즉시 보수해야하며, 창문이나 출입문은 파리나 쥐 등 위생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에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구입한 음식물의 유통기한과 신선도를 확인하는 일과 식품별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일, 병동원 식재료는 해동 후 바로 조리해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냉장고에 음식물을 장기간 보관해도 보건위생상 별 문제없이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걸 보면, 식중독 발생이 더욱 걱정되는 부분이다. 가정 내에서도 냉장고에 오랫동안 보관한 음식물이나 검은 비닐 봉투로 쌓아 보관한 음식물은 주기별로 확인해야하고 냉장고도 깨끗하게 청소해야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식중독 예방관리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칼, 도마, 고무장갑 등을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등 청결하고 위생적인 조리도구를 쓰면서 교차 감염을 방지하고, 음식물 조리시 가열은 75C 이상에서 1분 이상하며, 조리한 음식은 바로 섭취하거나 필요한 경우, 5C 이하 또는 60C 이상에서 짧은 시간 보관해야 한다. 음식물을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시키거나 상온에 방치한 경우는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 음식물이 변질되거나 부패가 시작된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식중독 예방의 3대 원칙으로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급근대에는 식중독 사고가 없는 건강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바래 본다.

김명권

광주시 서구보건소장



사설

탄소섬유 전용 산단 조성 빨간불

탄소섬유 전용산업단지 조성 작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지원법'이 국회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관에 답답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말 그대로 탄소산업을 도민의 백년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야 하는데 왜 이렇게 초장부터 터덕거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탄소산업은 분명히 전북도와 전주시의 핵심 성장동력 산업이 분명하건만 주변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전략을 재점검 해야 한다. 이쪽에서 불 때는 주머니 담당한 것이어도 저쪽에서 불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쪽에서 탄소섬유 전용 산업 단지를 자력으로 조성할 능력이 있다면 몰라도 기획재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면 반드시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 타당성이 완벽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KDI의 예비 타당성 평가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경제성을 인정받는 1에 못미쳐 0.85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이다.

탄소섬유 전용산업단지 조성은 그 책임이 전북도와 전주시에게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기획재정부와 KDI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 설

득 작업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논리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면 곤란하다. 전북도가 도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면 바 2천3백억 원이 투자될 탄소섬유육가산 산업단지 조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그것은 기정 사실처럼 보이고 있다. 전북 정치권이 안일하게 대응한 면이 크지만 전북도와 전주시도 그것은 똑같다.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국가사업으로 키워내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분반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홍보에 힘을 쏟으면서 도민들의 기대를 한껏 키워 놓으면 무었하는가.전북도와 전주시는 그동안 크지만 무엇을 얻어서는 안 된다.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것을 도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도지사 이하 관계자들은 탄소 산단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른 광역지자체 쪽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합격점을 받고 있는데 이쪽은 그러지를 못하니 유감이다. 전북도가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을 위해 제안한 국비 규모가 5천 200억원이었던 게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요구 정부와 KDI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 설

새만금 투자약속 공수표 양산

전북도는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약속과 관련해 점검이 철저해야 했다. 본래 약속대로라면 투자액의 규모가 2조 원인데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7%대에 머물고 있으니 말이다. 기업들 대다수가 약속만 해놓고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로 약속을 철회할 기업들이 많을 게 뻔하다. 전북도와 군산시의 역량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말을 또 해야겠다. 새만금 투자 유치 작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지 궁금하다. 그동안 기업 유치와 관련한 소식이 뜸했는데 약속을 한 기업들마저 중도 탈락을 말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도내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용 환경도 열악한데 이래로라면 앞으로가 걱정이다. 일자리도 늘어나고 고용도 안정되게 하려면 전북도의 활발한 기업 유치가 필수적인데 말이 다. 전북도는 그걸 목표로 힘껏 뛰고 있는 지 지문해야 한다. 전북도는 유치한 기업들이 많다고 낙관해선 안 된다. 전북도가

밝힌 유치 실적 발표를 다시 언급하고자 하는데 얼른 생각할 때 그것은 대단한 성과였다. 그 당시 기사에 따르면 고용창출 예상효과가 총 3만1000명에 이르렀으니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고용 인구는 고작 2048명에 그쳤다. 그것은 투자액 규모가 약속했다는 이야기일 테다. 전북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MOU 각서가 아니라 실제로 투입된 돈의 액수이다.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는 진짜로 유치된 기업이라는 이야기다. 양해 각서에 서명만 해놓고 그 시기를 한정없이 미루다가 파기시켜버리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쪽 기업 유치가 활발해야 한다. 이같은 주문은 기업 유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양해 각서에 서명하고 사진을 찍어 홍보를 하는 식의 기업 유치로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가 없다. 전북도는 앞으로 분명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독자제언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보호에 최선을

5월은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16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 가정의 의미를 돌아 볼 수 있는 달이다.

'가화만사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가화만사성'은 많은 가족들의 가훈으로도 꼽히는데, 모든 일은 가정에 서부터 비롯되고, 따라서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하지만 화목해야 할 가정에 많은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 2013년 16만272건, 2014년 22만7608건, 2015년 22만772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처리도 2014년 1만7557건, 2015년 4만822건으로 132%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최근, 경찰서에서는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라는 제도를 새로

게 도입하여 피해자의 신분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안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만약 가정폭력을 겪었을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 등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가정폭력의 원인을 알면 문제의 해결도 한결 쉬워질 수 있다. 가족 내에서는 부부 간에 서로 존중해주고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보지 않고 그녀의 인격체로서 대우해주며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매를 드는 것만이 훈육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 남의 집 일이라도 최소한의 관심을 보인다던 한 가정의 비극으로 가는 일을 막을 수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며 '가정폭력'이 점차 줄어들길 기대해본다.

이종림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독자제언

부처님 오신 날, 사찰 도난·화재 대비해야

오는 5월 14일(토)(음력4월8일)은 부처님 오시는 날로 불교계에서 연중 기념일 가운데 가장 큰 명절로 불자들의 왕래가 많은 부처님 오시는 날을 전후 시주금 도난 등 해마다 이맘때면 사건 사고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불자들이 심시일만으로 시주한 불사금(시주돈)이 부처님 오시는 날 행사로 어수선한 틈을 이용 도난당하거나 사찰 안자 주변에 연등설치에 앞서 사찰 내 전기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함께 경내 촛불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며 소화기를 눈에 띄는 장소에 배치해 놓는 등 자체 점검을 꼼꼼히 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현명한 자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는 불자들의 초행길 크고 작은 교통사고 등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부처님 오시는 날을 앞두고

불미스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에서도 관내 사찰의 취약 요소에 대해 5.4~5.12 범피 등 취약개소 방법진단을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도난이나 조형물 훼손, 화재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하여는 관계자 스스로의 사전 자가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시주함 시정장치, CCTV 작동상태, 소화기 총약 상태 등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자가진단 외에도 최소한 부처님 오시는 날 전후만큼이라도 지구대 파출소등 경찰관서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 방법활동 강화나 119 등 소방관서와 긴밀히 협조로 시설물 점검 등 화재안전 진단 등이 이루어 질 때 부처님의 자해가 풍만한 석가탄신일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종현 전주원신경찰서 화산지구대

Large graphic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featuring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boat on water and the tex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s who give courage and hope). It includes a call to action for subscribers and mentions 'Jeonju Daily' as a platform for regional news and opinions.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